

2002 지역경제 정책의 기본방향

문 명 수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

I. 서 언

1997년말,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때의 외환보유고는 37억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IMF 외환관리 체제로 산업화 과정에서 정성껏 쌓았던 공든 탑이 무너지는 아픔과 함께 우리 국민의 소득은 가만히 앉아서 3분의 1이나 줄어드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되었으며 우리 경제는 視界 제로의 긴 터널에 빠지게 된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다시 한번 경제 살리기 운동에 뜻을 모은 결과 다행히도 우리 경제는 서서히 회생국면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9.11 미 테러사태와 그에

대한 미국의 응전으로 세계경제가 또 다시 움추러 들자 수출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재가동 하기 위하여 정부는 미 테러 보복전의 전개 양상에 따른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책을 강구했던 것이다.

급속하게 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응하면서 튼튼한 우리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다양성과 개방성의 양면을 동시에 갖는 지역경제를 소생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함께 대두된다.

사실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된 하나의 주요 原因도 지역경제 기반의 취약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60년대 이후 유지해 온 산업사회의 종언(終焉)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였고 세계경제의 큰

파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채 과거의 경제체질에서 탈각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아르헨티나 사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는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작년 11월에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뉴라운드)에서 보듯이 21세기는 경제의 개방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개방화 시대에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대외환경과 대내여건에 잘 적응해갈 수 있도록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추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셈이다.

즉, 지방에 소재하는 전통산업, 굴뚝산업도 세계화·정보화의 큰 물결에 순응할 줄 알아야 하며 마케팅이나 경영전략도 리모델링화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II. 세계경제 전망과 우리경제

침체된 세계경제는 빠르면 2/4분기부터 미국을 필두로 회복될 전망으로 있으며 IMF등 세계경제를 전망하는 기관들은 올해의 세계 경제는 2.4%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가는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저인플레이 현상은 금년에도 지속되어 선진국은 1.3%, 개도국은 5.3%의 물가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주요 나라별 경제전망을 보면 미국의 경우 최근의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며 점차 경기회복 징후가 확산되면서 2/4분기부터 경기가 되살아 날 전망이다. 다만,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추가인하 여부와 재정확대 시행시기 및 저유가 안정여부가 미국경제의 주요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금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 또한 5%대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 재정 건전화 정책의 유지 문제 등이 금년도 일본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1.0%의 물가안정속에 고성장(GDP성장률 : 7%이상)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확대에 따른 인접국 공동화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세계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경제는 미국 등 세계경기가 1/4분기에 저점을 통과하고 2/4분기 이후에 V자형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도 2/4분기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의존도가 GDP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 등 세계경제 회복은 우리 경제회복의 필수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과거의 예로 보아 미국의 소비와 설비투자가 플러스 성장을 보이게 되면 동시점에서 우리의 수출경기도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체수입품 중에서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는 반도체 및 IT산업의 회복여부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미국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드는 2/4분기부터 시장에서의 컴퓨터 등 PC의 신규

수요가 강해지면서 우리의 반도체 수출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경제는 상반기 중에는 정부의 재정 집행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발휘되어 소비는 물론 국내경기를 주도하는 건설산업도 호조세가 유지될 것이며 하반기 중에도 미국주도의 경기회복과 저유가 추세가 지속되어 이로 인한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로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Ⅲ. 지역경제 활력화 기본방향

세계경제의 침체속에 산업생산등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지역경제 상황은 지방상권의 위축,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금년도에도 지방단위 산업을 활력화 시키기 위하여 지방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화 역량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지방예산을 지역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투자되도록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약 20조원의 금년도 투자예산을 상반기에 85%이상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벤처협동화 단지, 창업보육센터, 기술혁신센터 등의 지역전략산업의 성장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중소 상공인의 창업, 경영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대를 위한 지방예산을 투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한 건전한 지역유통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47개 재래시장의 기반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특히, 월드컵에 대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에도 지방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SOC사업 및 지방건설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등 각종 기금의 활용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복지정보시스템」을 확장하는 동시에 저소득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함은 물론 청소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구인·구직활동의 장제공으로 실업해소 대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Ⅳ. 2002년도 주요 역점시책

1) IT·BT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지원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지방공업단지 기반정비, 지역특화 상품의 판매·유통촉진 기반조성 등 지역산업의 경쟁

<표 1> 시도별 첨단전략산업

시도별	전 략 산 업 내 용	시도별	전 략 산 업 내 용
서 울	의료, 정보통신서비스	부 산	신발, 자동차, 물류, 선박
대 구	섬유, 메카트로닉스	인 천	생물(환경·의약), 물류
광 주	광산업, 가전	대 전	생물, 소프트웨어
울 산	자동차, 조선	경 기	반도체, 전자정보기기
강 원	관광, 생물(농업·해양)	충 북	전자부품, 생물(의약)
충 남	석유화학, 전자정보기기	전 북	자동차부품, 의류(니트)
전 남	석유화학, 생물(농업·식품)	경 북	철강, 전자정보기기
경 남	기계, 메카트로닉스	제 주	관광, 컨벤션사업

력 기반을 강화하는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시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전략산업(표1)에 덧붙여 작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지역산업의 발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력화를 경제성장과 연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표2).

금년도에는 약 400억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며 경기 활력화를 위하여 조기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표 2> 2001년도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예시)

- 부산 : 중소조선기자재 진흥센터 설치
- 대구 : 벤처협동화 생산단지, 봉제기술지원센터
- 강원·충북·전북 : 벤처창업 보육센터 설치
- 경북 : 자동차부품 기술혁신센터
- 경남 : 바이오 21센터 건립 등

2) 지방재래시장 기반확충사업 추진

'96년도의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 및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방 입점 증가로 재래시장은 크게 위축되어 지역경제 침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 화장실 등 핵심 기반시설은 재래시장의 가장 취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의 개·보수나 현대화를 통해 틈새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갖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작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47개 시장을 대상으로 매년 200억씩 총 600억을 지원할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와 내년에 걸쳐 45개 시장에 40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표3).

재래시장의 기반확충을 통해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고객 유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 경영현대화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 사업은 청양 구기자시장, 금산 인삼시장처럼 시장별 고유의 특성을 살려 줌으로써 특화시장으로서의 경쟁력도 확보 되도록 하고 있다.

<표 3>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개요

1. 재래시장 현황

구 분	시 장 계	일반시장	재 래 시 장		
			계	상설시장	정기시장
시 장 수 (비 중)	1,553 (100%)	454 (29.2%)	1,099 (70.8%)	518 (33.4%)	581 (38.1%)
점 포 수	211,160	102,869	108,291	74,985	33,306
종사자수	269,208	133,208	136,000	93,976	42,024

* 상설재래시장 : 상설시장중 `80년 이전에 개설되거나 시설이 노후화된 시장
 - 주차장 없는 곳 825개소(69%), 화장실 없는 곳 124개소(11%), 수거식 화장실 814개(69%)

2.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3개년 계획 개요

가. 대상시장수 : 15개 시·도, 47개 시·군·구, 47개 시장

나. 사업비 : 개소당 평균 12.7억원 지원
 ○ 3개년간 교부세 총 600억원 지원 (총사업비 1,238억원)
 - '01년 : 23개소 200억, '02~'03 : 45개소 400억(신규 23개소, 계획 21개소)

다. 대상시장 유형별

- 전문특화시장 : 부산 자유시장, 대구 약령시장, 금산 인삼시장 등 19개소
- 관광명소화 : 인천 차이나타운, 수원 팔달문시장, 서귀포 중앙시장 등 10개소

○ 지역 대표시장 : 부산진시장, 포항 죽도시장, 광주 양동시장 등 18개소

라. 사업내용별

- 주차장 신·증설 : 27개소
- 진입로 확포장 : 16개소
- 화장실 현대화 : 20개소
- 보도정비, 아케이드 등 26개소
 * 산자부에서는 '02년도에 1개소당 5억원씩 총 48개 시장에 24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3. 2001년도 지원현황 및 2002~2003년 지원계획(안)

(단위 : 억원)

시도별 (개소수)	계	2001년		2002~2003년	
		시 장 명	지 원	시 장 명	지 원
계 (47)	600	23개	200 (319)	24개	400 (281)
부 산(4)	40	·부산진 (동) ·국제 (중)	6(13) 6(9)	·자유 (동) ·부전 (부산진)	3(9) 2(9)
대 구(2)	39	·약령 (중)	12(19)	·칠성 종합 (북)	10(20)
인 천(2)	36	·신포 (중)	12(16)	·차이나타운 (중)	9(20)
광 주(4)	37	·양동 (서)	12(12)	·송정 (광산) ·비아 (광산) ·대인 (동)	5(9) 4(7) 4(9)
대 전(3)	37	·중앙 (동)	12(15)	·문창 (중) ·한민 (서)	7(11) 4(11)
울 산(3)	33	·남창 (울주)	12(14)	·성남 (중) ·신정 (남)	3(7) 5(12)
경 기(2)	36	·수원 팔달문	12(20)	·오산 중앙	8(16)
강 원(3)	44	·춘천 중앙	12(20)	·강릉 동부 ·원주 자유	5(11) 6(13)
충 북(3)	40	·청주 옥거리 ·충주 자유	8(20) 7(11)	·음성	4(9)
충 남(4)	43	·청양 구기자특화 ·서천 수산물	6(9) 9(12)	·홍성 젓갈특화 ·금산 인삼약령	2(7) 5(15)
전 북(3)	45	·군산 공설 ·남원 공설	8(17) 7(9)	·전주 모래내	11(19)
전 남(3)	44	·나주 영산 ·담양	9(16) 6(15)	·목포 중앙식료	3(13)
경 북(4)	46	·포항 죽도 ·안동 중앙	8(16) 7(13)	·경산 ·경주 안강	7(14) 3(3)
경 남(4)	44	·마산 부림 ·진주 중앙	6(6) 9(13)	·김해 동상 ·진해 중앙	6(12) 3(13)
제 주(3)	36	·서귀포 중앙 ·한림 농특산물 (북제주)	7(14) 7(10)	·서문 공설 (제주)	5(12)

※ ()는 교부세 총지원액

3) 청소년 실업대책 적극 추진

'97년말의 IMF 외환관리체제와 기업·금융 등 4대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업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실업계층의 최저생계 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9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98년의 6.8%를 정점으로 점차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도 12월의 실업률은 3.4%

를 보였다. 이와 같은 실업률의 하향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성공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본다.

다만, 실업률은 하향하고 있지만 고학력·청년층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01년 12월의 20대 청년층 실업자는 322천명으로 전체실업자 762천명의 약 42.3%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와관련, 만성적인 청소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IT인력 해외취업 등 일자리 창출노력을 강화하

<표 4>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1. 그 동안 추진실적

구 분	계	'98	'99	'00	'01
실업률(%) (실업자수)	-	6.8% (1,461천명)	6.3% (1,353천명)	4.1% (889천명)	3.7% (819천명)
예 산 액	34,822억원	7,800억원	15,124억원	7,898억원	4,000억원
선발·투입 인 원	3,031천명	350천명	1,439천명	795천명	447천명

2. 연도별·사업별 예산투입 현황

구 분	계	'98	'99	'00	'01 (3분기까지)
계	34,104억원 (100.0%)	6,946억원 (100.0%)	14,507억원 (100.0%)	8,307억원 (100.0%)	4,344억원 (100.0%)
정보화사업	3,292 (9%)	62 (1%)	1,596 (11%)	1,105 (13%)	529 (12%)
생산성사업	17,679 (52%)	2,362 (34%)	7,979 (55%)	4,720 (57%)	2,618 (60%)
공공서비스	7,876 (23%)	1,459 (21%)	3,482 (24%)	2,003 (24%)	932 (22%)
환경정화등	5,257 (16%)	3,063 (44%)	1,450 (10%)	479 (6%)	265 (6%)

3. 2002년도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구 분	계	제1단계 (1.7 ~ 3.31)	제2단계 (4.8 ~ 6.29)	제3단계 (7.8 ~ 9.28)	제4단계 (10.7 ~ 12.28)
예 산 액	3,500억원	1,400억원	700억원	700억원	700억원
선발예정인원	175천명	70천명	35천명	35천명	35천명

고 취업유망분야 훈련 및 S/W기술교육 등으로 14만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아울러, 금년에는 3,500억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약 175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중 청소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는 DB 구축 등 정보화사업에 예산의 15%인 525억원을 투입하여 46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표4).

4) 월드컵 경제효과 극대화 추진

올림픽은 하나의 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된다는 의미에서 중앙 중심적 성향을 띠지만, 월드컵은 지방의 여러도시에 분산되어 개최함으로써 지방중심적 성격을 띠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월드컵 대회에는 단순한 축구시합의 차원을 넘어 개최 도시별 특수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살려지고 지방경제·문화의 다양성이 함께 선보여야 하며 이를 승화시켜 국가경제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기장 주변정비 등 월드컵의 경제효과 극대화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10개 개최도시에 특별교부세 100억을 이미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8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표5).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서는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지역관광상품 개발·판매촉진, 수출 및 외자유치 노력, 테마가 있는 민박마을 조성, 지역특화상품 개발·육성, 경기장 시설의 사후활용대책 수립 등의 6대 분야 11개 시책사업이며 도시별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월드컵·AG대회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정감이 가는 한국적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 한 「국토공원화 및 무궁화심기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유휴지를 활용하여 국토경관 향상과 주민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무궁화가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정감있는 나라꽃으로 자리잡고 국민들의 단합과 애국심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무궁화심기 사업은 기 식재한 무궁화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표 5> 2001년도 월드컵 경제 시책사업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명	지 원 액
계	13개 사업	100
서 울	◦ 불광천변 테마거리 조성	10
부 산	◦ 경기장 주변도로 조명시설 정비 ◦ 경기장내 지구촌 젊은이의 광장	7 3
대 구	◦ 월드컵 종합관광 안내소 설치	10
인 천	◦ 사이버 통·번역 콜센터 설립	10
광 주	◦ 월드컵경기장 주변 육교 가설	10
대 전	◦ 경기장 주변 가로경관 개선 ◦ 경기장 주변 테마거리 조성	5 5
울 산	◦ 경기장 앞 음악분수대 조성	10
경 기 (수 원)	◦ 경기장 주변 진입도로 정비	10
전 북 (전 주)	◦ 경기장 주변 도로정비 사업	10
제 주 (서귀포)	◦ 지역 이미지 홍보관 설치 ◦ 경기장 주변 테마거리 조성	5 5

<표 6> 접경지역지원 추진상황

일 자	내 용	비 고
'99.12.16	접경지역지원법(안) 본회의 의결	의원입법
'00. 1.21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공포(법률 제6185호)	
'00. 8.28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6956호)	
'01. 3. 9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개최(종합계획수립지침 심의)	
'01. 3.26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지침 확정·시달(인천·경기·강원)	
'01. 3.26	시도 접경지역계획(안) 수립추진	
~ '02. 1	- 주민 공청회 실시('01.8~9월) - 계획(안) 취합('01.11월) - 계획(안) 수정·보완('01.11 ~)	

5) 접경지역의 체계적 지원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근 50년동안 개발 제한과 국가정책적 목적에서 토지이용이 규제되어 지역개발의 낙후로 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곳이 접경지역이다.

이 지역은 낙후된 반면에 풍부한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으로 국가차원의 전략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99년 12월에는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틀이 마련되게 되었다(표6).

동 지역은 인천·경기·강원의 3개 시도(15시·군, 98읍·면·동)에 걸쳐 있으며 8,097km²의 면적에 656천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동 법은 주민복지의 증진,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및 통일기반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관련 시도에서는 「시·도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접

경지역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이점에 착안할 때 금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수립되는 접경지역종합계획은 매우 중요한 마스터플랜인 만큼 종합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기본방향 및 정책적 지침을 올바르게 설정하여 연차별로 관련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V. 결 어

미국경제의 회복조짐이 실물경제상의 여러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경제로서는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미국경기 회복이라는 낙관론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이제 부터는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수출시장을 소위 3중(中東, 中南美, 中國)으로 확대하거나 수출품도 다변화하는 새로운 총체적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전략은 지방으로부터 발산되어야 하고 지역경제 기반의 확충이 절실히 요청된다. 왜냐하면, 지방화는 곧 세계화이며 「地方은 末端이 아니라 尖端」이기 때문이다. 국가경제를 살찌우고 작지만 일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경제의 활력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방경제는 국가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으므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충분하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서는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동반자적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으며 IMF 외환관리체제를 극복해 온 그 저력을 다시 한 곳에 모아 총 결집해 나가야 하겠다. 